

"교통안전 교육이 最高의 보약입니다"

허 익 소장(어린이 교통안전 연구소)

1. 글을 시작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옛날 어릴 적에 서커스를 보던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리따운 소녀가 우산을 들고 외출 타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 소녀가 떨어지면 어찌나하며 가슴졸이며 보던 그때 그 모습.

그러나 그 곡예사는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설사 떨어졌다 할지라도 밑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생명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자녀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곡예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 한번 받지 못한 채 밑에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자녀가 도로를 어떻게 건너고 있는가를 한번 따라가 확인해 보십시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게 널려있는 차도에 내려서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만일 우리아이의 달리기를 조금 못했거나 운전자가 보다 과속으로 달렸거나 어린이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 과연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 동안 우리 자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설마 설마 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교통사고, 얼마든지 어머니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자녀에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능력이 월등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족분을 부모님이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으로 메워 주셔야 합니다.

이때의 교육은 단순히 "교통법규 지켜라", "차조심해라"하는 일방 주입식 이론교육보다는 부모님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실제 도로상에서 이해를 시켜주는 실습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켜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거나 부득이 처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음을 깨닫고 양질의 보약을 자녀에게 꾸준히 복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급증은 생활의 편리성 못지 않게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9년의 경우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9,353명이 사망했고, 402,967명이 부상 당했으며,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경우도 490명이 사망, 29,749명이 부상하여 1일 평균 83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연도	구분	전 체		어린이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995		10,323	331,747	788	33,850
1996		12,653	355,962	858	32,456
1997		11,603	343,159	711	29,080
1998		9,057	340,546	499	27,411
1999		9,353	402,967	490	29,749

※경찰청 '95~'99 교통사고 통계분석

비록 99년의 경우 어린이 사망자가 49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었다 할지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운전자, 보행자의 의식 대변혁에 따른 감소가 아니므로 결코 좋아하거나 자만에 빠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90명의 사망자 숫자 역시 스웨덴의 50여명, 네덜란드 80여명등 선진국에 비해 6배~9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어린이 사고의 70~80%이상이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들의 교통안전에 관심만 많을 뿐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3.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과 사고유형은?

1) 사고특성

(1) 보행중 사망률이 65%에 이르는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10~20%선에 불과)

(2) 교통노출도와 비례합니다.

교통노출도란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1년 중 봄이 특히 4, 5월에 토요일에 오

후 2~6시 사이가 교통 노출도가 높습니다. 즉, 뛰어놀기 좋은 시간인 만큼 교통사고 위험 역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3) 초등학교와 집주변 반경 1km이내에서 70%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4) 미취학 아동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으며 7~8세 때 초등학교 1학년 사고가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 99년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사망자가 5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사망자 164명중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5) 여아보다 남아사망이 1.6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밖에서 뛰어놀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6) 사고시 치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text{(치사율)} = \frac{\text{사망자수}}{\text{교통사고발생건수}} \times 100$$

2) 사고유형

본 사고유형은 필자가 최근 보행중 사고 437건을 분석한 것입니다.

- (1) 뛰어서 무단횡단 167건 (38.3%)
- (2) 횡단보도 사고 81건 (18.5%)
- (3) 이면도로를 건다가 55건 (12.6%)
- (4) 자전거를 타다가 39건 (8.9%)
- (5)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다 35건 (8.0%)
- (6) 차량사이에서 뛰어나오다 31건 (7.1%)
- (7) 차 뒤에서 놀다가 17건 (3.9%)
- (8) 버스의 앞·뒤 횡단사고 12건 (2.7%)

4.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교육방법은?

1)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우선 멈춘다.

길을 건너거나 차도로 나갈 때는 항상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우선 멈추어야 주위에서 차가 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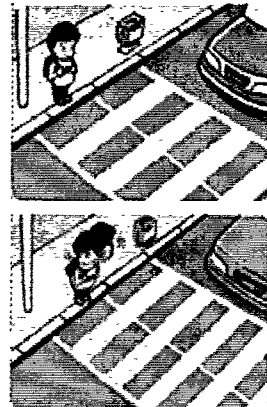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선 멈춘다.”

둘째, 왼쪽·오른쪽 차를 본다.

우선 멈춘 다음에 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가며 왼쪽·오른쪽 차를 본 후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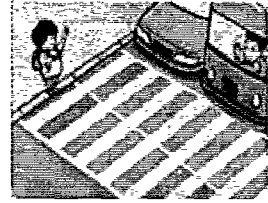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좌·우 차를 본다”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횡단보도는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오른쪽으로 간만큼 안전하며 손을 드는 것은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추어 주세요”하는 말이므로 처음에는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왼손을, 반정도 지난 다음은 오른쪽에서 차가 오므로 오른손을 듭니다. 따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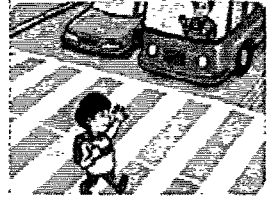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넷째,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

녹색불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그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 다음 건너세요. 따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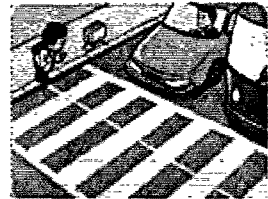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



다섯째, 도로를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

어린이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를 멈추게 하려면 무엇을 밟아야 하지요? 브레이크지요. 보다 빨리 가게 하려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멈추려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보다 빨리가게 하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되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으므로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차를 계속 보면서 가야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로를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

2)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 원인과 예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99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세된 여자 어린이가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40km로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16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상시 자녀에게 무단횡단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과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실제 도로에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다른 어린이가 무단횡단하려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두 다 내 아이’ 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노력하고 다른 어머니가 이와 함께 할 때 부득이 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어린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다가

99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어머니가 6세와 8세 된 남매를 양손에 붙잡고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50km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왼편에 있던 6세의 남자아이가 5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가 오히려 자녀의 교통사고를 부추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곧 자녀에게 교통사고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단횡단을 할 것이며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3)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99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9세 된 남자 아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차에 부딪혀 그만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을 실제 도로에서 자녀에게 알려주어 절대로 횡단하기 위해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차의 바로 앞이나 뒤를 돌아 횡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도를 천천히 걷는 것보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경우, 무려 18배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운전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방어운전,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4) 녹색불이 들어오자 갑자기 뛰어들다

99년 서울 구로구에서 있었던 일로, 횡단보도의 왼쪽에서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던 8세 된 남자아이가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뛰어 들다가 갑자기 멈춘 버스에 부딪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아이에게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고처럼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거나, 어린이가 손을 든다고 해도 모든 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갑자기 멈추는 차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항상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보행시 항상 손목을 잡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조급한 특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길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5) 횡단보도 앞에 세워놓은 차 앞을 지나가다가

99년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있었던 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9세 된 남자아이가 횡단보도 앞까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앞을 뛰어서 건너다가 시속 70km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만 숨졌습니다.

횡단보도 앞까지 설치해놓은 노상주차장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이 사고는 인천시 당국의 무지에서 비롯됐으므로 당연히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앞까지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래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6)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들다가

99년 대전 중구에서 있었던 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세 된 여자아이가 ‘건너갈까 말까’ 망설인 끝에 뛰어들다가 시속40km로 오는 차에 부딪혀 약 6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대부분은 차가 오면 ‘먼저 갈까, 나중에 갈까’ 하고 갈등하다가 ‘저쪽이

양보해주겠지’ 하며 먼저 가려다 발생합니다.

먼저 건너갈 경우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후 건너갑니다. 운전자 역시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 손으로 “먼저 가라” 는 신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7) 차 뒤에서 놀다가

99년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5세 된 남자아이가 차 뒤에서 놀다가 그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치여 그만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차가 멈춰 있으면 계속해서 멈춰 있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멈춰 있는 차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차 뒤에서 놀면 위험하다는 것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는 어린이를 볼 수 없다는 점(사각지대)을 설명해주어 결코 차 뒤에서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어린이는 차량 뒤쪽 움푹 패인 곳, 커다란 상자 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후진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찾길로 공을 주우러 달려가다가

99년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찾길로 굴러가자 그만 공을 주우러 달려가던 어린이가 차에 치여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로 나갈 때는 항상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공놀이에 몰두해 있는 어린이는 차가 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므로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가급적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에 나가 실제 공을 찾길로 굴러본 후 어린이에게 일단 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을 주우러 가는 연습을 반복하게 합니다.

(9)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99년 경부고속도로 오산 근처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안전벨트를 맨 부모는 가벼운 경상, 중상에 그쳤으나 6세와 7세 된 어린 남매는 그만 밖으로 튕겨나가 뇌진탕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망사고를 90%, 부상사고를 75%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조수석에 안고 타서는 안 됩니다.

(10)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앞으로 돌아 뛰어가다가

99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0세 된 남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앞으로 돌아 뛰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 7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도로에 나가 차 바로 앞이나 뒤를 돌아 길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십시오.

길을 건널 때는 우선 운전자와 눈을 맞춘 다음 건널 것을 아이와 약속하십시오.

운전자 역시 차량의 앞에서 언제든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어린이 교통안전 학교 활용하여 교육을 시키십시오.

(1) 학교 개설목적

- 인터넷을 통하여 초등학교·유치원·유아원 등 어린이 교육기관에 연령별, 학년별 교통안전 교육내용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줌
- 내자녀의 교통사고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담은 교육교안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모님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해줌
-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그 예방법 등 어린이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할 내용들을 수록한 만화책을 제공하여 스스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며 지역별로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어린이 교통안전 백일장 개최 등 교통안전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

(2) 인터넷 주소 <http://www.go119.com>

(3) 주요내용

- ①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사고원인
- ②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사고유형과 예방법
- ③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 선생님용 교육교안
-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니용 교육교안
- ⑤ 어린이 교통안전 실천수칙 10칙
- ⑥ 질문·답변식의 어린이 교통안전 백과
- ⑦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과 예방법
- ⑧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법
- ⑨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 ⑩ 어린이 교통공원 소개(일본의 교통공원 탐방기 포함)
- ⑪ 교통사고시 응급처치방법
- ⑫ 인공호흡법과 심장압박법 등 심폐소생술법
- ⑬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대회 질문·답변
- ⑭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안내

5. 글을 맺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률은 무려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중 65명이 도로를 건너다가 도는 길에서 놀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교

통보행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유형인 이 보행중 사망률 65%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체계적인 교통안전 실천 교육만 시켜준다면 10%대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어린이 보행중 사망률이 13%이며 네덜란드도 18%에 불과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1971년 순수한 민간봉사 단체로 교통안전 어머니회가 결성되어 현재 회원수만 해도 65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70년 2,094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998년 300명으로 무려 1700여명 이상을 줄인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해온 선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과정 분석과 함께 꾸준히 교통안전 실천 교육만 한다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망자수도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모님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실제 도로상에서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실습교육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모두다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99년 기준 490명의 어린이 사망자수를 100명 이하로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물론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시오. 내 자녀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첫째, 자신이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 하심은 물론 미 준수자에 대해 계도까지 해주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실제 도로상에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꾸준히 시켜주십시오(자신도 어린이 교통안전 지식 습득에 노력하십시오)

셋째, 보행중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모두 다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노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준다면 부득이 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전하는 부모님은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사고유형 등을 숙지하신 후 내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나 역시도 이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생활화 해주십시오.

특히 자신이 과속·난폭 운전을 한다면 자신의 귀여운 자녀 역시 어느 과속·난폭 운전자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안전운전이 내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때,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때 사랑스런 우리 자녀들이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것임을 감히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나 혼자만 편하고자 하는 무단횡단, 나만 조금 빨리 가고자 하는 불법·난폭 운전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귀여운 우리 자녀들은 교통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

습니다.

티없이 맑고 해맑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 차가 무서워요」라는 말 대신에 「교통사고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노래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당부드립니다.